

# The Korean Pacific Weekly

"Established, Sept. 1913"

Entered as 2nd class mail matter,  
14 July, 1944 at the Post Office  
at Honolulu, Hawaii, U.S.A., under  
the Act of 3 March, 1893.  
Honolulu, Hawaii  
Add. 931 N King St.

Published  
Korean Dongji Hei  
931 N. King Street  
Honolulu, Hawaii, T. H.  
P. O. Box 1275  
Phone 88448  
B. Y. Choy, Mgr.  
Sun Choo Choi, Editor

순수하다는 거슬을 나타내는 거울이 있다.  
권위하시는 소식총을 드리고자 한다.  
부터 알려진 바에 의하여 드리며  
[기신] 수사들은 거의 이미  
가동되어 평화선언문에 거의  
더 걸려온을 저지하고 노련한  
하고 이는 농립선으로 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으며 저산선문제를 담당하는  
하는 대장인의 의견도  
그 인사로 한다.  
  
「후」 서기·마레비포  
제10탄전?  
[소련] 대포 인사 이도  
이스탈리노  
  
[로마] 신령일발 예인에  
도==[도화] 이끄는 외교단과  
국에 도착한 보도는 소련  
지도층에 꼳 대적인 인사  
구현은 이도의 이술을  
말하고 이사  
  
이 보도는 당년 七十六  
세의 소련 대교회의  
의장 [크라메르] 볼시로  
는가 머지안야 은퇴  
이라고 말하였다. 이거운  
는 이승록의 중고 바우  
후에 이술거사라고  
한국  
[크라메르] 전시한 세력  
은 그에게는 보다 두사람이 더  
나 예상한 거자거자 더  
양호한 러보온산다. 제  
서기 「니키타 후루시호프  
와 一九五四年 수상직을  
서임하고 보수상임정부  
동포당하고는 주인은  
세계 「개우루기」 아래 누른  
양이란에 분할 될거스 이  
더 동통당의 하나가 수상을  
리고 다른 하나가 고산당  
이다. 그들은 모두  
동포당하고는 주인은  
세계 「개우루기」 아래 누른  
양이란에 분할 될거스 이  
더 동통당의 하나가 수상을  
리고 다른 하나가 고산당  
이다.

- 一九五七年四月二十六日

여우,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헌제  
三워타일 부터 수출  
허가 제도  
[로드] 빅일발 우피  
동양 [로드] 여우 저우부는 이  
이로 북한에 대한 제한은 그  
수출 허리를 치해하였다.  
는 거슬을 확인 하여 소나  
여우 제조업자들을에게  
현저 수출 허가를 주고 이  
는 데에 관하여는 어금을  
회피하였다.  
사우서성의 대변인은  
하루 전처으로 인한 一  
九五〇년의 대북한 수출  
금지령은 三워타일로 하니  
제거하고 마땅하였다.  
제거하고 마땅하였다.  
워타일부의 고요  
는 여우 산사들이 북한  
을 후려 앤전 주문을 발  
고 있다며 사우서성은 三  
워타일부의 수출 허가  
수령을 제거할 것이라  
고 말하였다.  
여우은 수출 허가제  
를 통하여 주고이기 기록  
고사부국가에 대한 서방  
즉 통상사제한을 시험하  
고 이다.  
사우서성 대변인은 북  
한에 대한 수출 허가가  
허여되며 이는 가는 듯은 어  
서운을 허락될 거  
기기에 판매하는 약국을  
회피하고 그자신은 비밀로  
숙한거리를 말하였다.  
그러나 제통한 소식  
로운은 북한에 대하여  
주제로 이에 금지되어  
이스는 품목의 수출을 허  
용하기는 고난할 거시라  
고 말하였다.  
하온 혀쳐 여우국을 부터

다 이 구입할수 이는 거시이  
「리마트」 영 수상은  
제년 달 「부류대」에서 아이  
제하위 미 대통령에 개  
중고에 하여 6년간  
속되어온 통상 이 소련  
를 구입하는것을  
할 아무런 확실한 바  
처도 어렵다 「리마트」  
수상은 「아」 대통령에게  
말한거스로 생각되고  
여서다한다  
이로 말미암아 「아」 대  
통령은 「부류대」를 기  
로하는데 도의 학생하고  
소시「로인들이 밟아죽여다 미  
국 제우는 이 제한의 일  
부 완화에 대한」 지지를 주고  
합한 회의장을 가지고 회의장  
지도자들하고 협의하여다  
「아」 대통령에  
국이 속히 통상이 제한되는  
화에 하지 않는 한전  
금수제도가 병교되다  
서울을 진정「아」 대통령에  
에게 세하위 애송을 이며 빅  
하다 영국과 기타 영국부국  
이 서로 합의를 본바이든은  
면 수상 부통령을 두시  
여서 저마다  
다

파산당 제1서기와 그동안 활동한 소수 고문과 혼인국방상임은 오늘 그동안 대사관에서 거친 되어온 만족회 석상에서 선구 국에 대한 대원들을 밤하고 하이아리에서 지도 한 대반려들을 동도 도로에서 다시 되풀리하지 않도록 선구 제국에 겨우마을 고, 선구 제국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중앙집권화로 유도한 일을 주도하는 한 겨우마, 도스코바가 지도하 이는 「활약」 조약 가리마 구도 억지 이어 대항방위 유의가 그동을 것은 사실을 하고 「우리는 성인이야」 아 디자본주의 국가가 설득을 지 우리를 허통한 걸 겨우마 우리는 그동을 분쇄 할뿐인 주의를 말하였다. 주의 학장이라고 말하였다.

